

제2공항, 도민 '반대' - 성산 주민은 '찬성' 우세

한라일보 등 제주도기자협회 회원사 공동 여론조사 결과
 도민 반대 47.0%·찬성 44.1%... 반대 51.1%·찬성 43.8%
 성산 찬성 64.9%·반대 31.4%... 찬성 65.6%·반대 33.0%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과 성산을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전체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반대가, 성산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제2공항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이로써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제2공항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제주도와 국토교통부, 도의회 등 지역 사회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한라일보를 비롯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제민일보·제주일보·제주CBS·제주MBC·JIBS·KBS제주·KCTV제주방송·연합뉴스)는 18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도민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했다. >>관련기사 2·3면

이번 조사는 도기자협회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하 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이하 엠브레인)이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체 도민(성산을 주민 포함)과 성산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 갤럽 여론조사에선 제2공항 반대가 47.0%, 찬성이 44.1%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앞섰다. 나머지 6.1%는 모른다고 답하거나 응답

거절했으며, 2.7%는 어느 쪽도 아니라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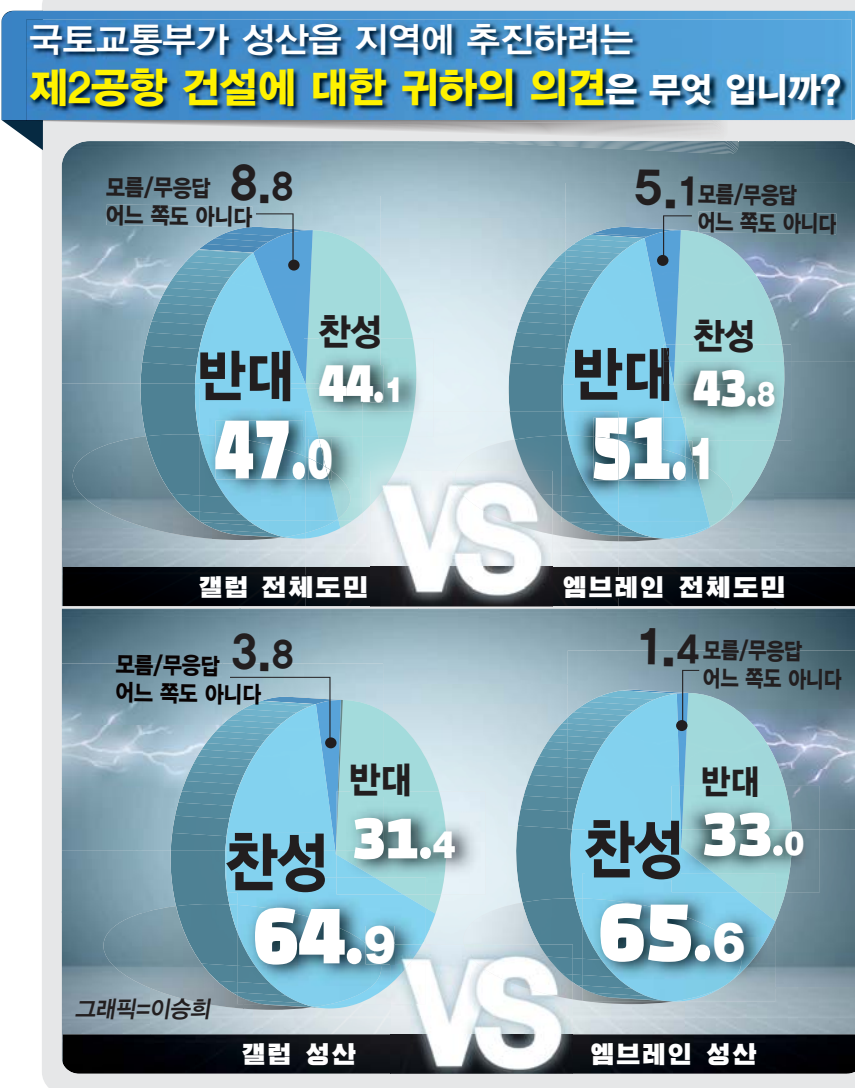
엠브레인이 실시한 전체 도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단 제2공항 반대가 51.1%, 찬성이 43.8%로 나타나, 갤럽과 달리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 우세했다. 나머지 3.5%는 모른다고 하거나 응답을 거절했으며, 1.6%는 어느 쪽도 아니라고 답했다.

성산을 주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는 두 기관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갤럽 조사에선 찬성이 64.9%, 반대 31.4%로, 엠브레인 조사에선 찬성 65.6%, 반대 33.0%로 두 기관 조사에서 모두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가깝게 높았다.

모름·응답 거절은 갤럽이 1.8%, 엠브레인이 0.4%였으며, 어느 쪽도 아니라는 답변은 갤럽이 2.0%, 엠브레인이 1.0%였다. 한편 전체 도민 여론조사 표본 수는 갤럽의 경우 제주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2019명(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2.2%포인트)이고, 엠브레인이 20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2.19%포인트)이다.

성산을 주민 대상 조사 표본 수는



갤럽의 경우 성산을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504명(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4.4%포인트), 엠브레인이 500명(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4.38%포인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전체 도민과 성산을 주민을 포함해 총 5023명을 대상으로 실시

다. 통계보정은 2021년 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라일보사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이재명 1위

2위 이낙연 대표·3위 윤석열 총장 등 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달렸다.

한라일보를 비롯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회원사(제민일보·제주일보·제주CBS·제주MBC·JIBS·KBS제주·KCTV제주방송·연합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하 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이하 엠브레인)의 정당 지지도

민주당 1위·국민의힘 2위

현 정부 국정수행 평가 긍정 응답 우세

가장 높았다. 갤럽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41.0%), 국민의힘(16.1%), 정의당(5.7%), 국민의당(4.2%), 열린민주당(3.7%) 순이었으며, 엠브레인 역시 더불어민주당(40.6%), 국민의힘(18.2%), 정의당(7.1%), 국민의당(5.3%), 열린민주당(5.0%) 순으로 높았다.

내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쪽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 지를 묻은 결과 여당 후보 당선을 원하는 응답이 많았다.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여론조사 기관 별로 43.2%(갤럽)와 39.8%(엠브레인)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다만 갤럽 조사에선 '제3후보 당선을 원한다'가 22.6%, '야당 후보 당선을 원한다'가 21.6%로 2·3위를 이었지만, 엠브레인 조사에선 두 응답이 똑같이 23.0%를 기록했다.

현 정부 국정 수행도 조사에선 긍정 평가가 앞섰다. 갤럽의 경우 '잘한다'는 응답이 46.6%, '잘못한다'는 응답이 35.1%였으며, 엠브레인의 경우 '잘한다'가 54.9%, '잘못한다'가 39.6%로 나타나 두 기관 모두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별로 만 19세 이상 제주도민 각각 2000명과 2019명을 대상(성산읍민 대상 별도 조사 결과는 배제)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와 관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라일보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문턱 넘어

어제 여야 합의로 의결... 2월 국회 처리 가시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안을 남겨두면서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전체회의의 시작 전 사

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시 전문가를 결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

당·제주시)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자 "여야 합의 처리로 4·3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